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17

차 례

주체사상지역토론회 진행소식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2017년 9월 18일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몽골주체연구쎈터,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와 로씨야,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 몽골의 주체사상신봉자들, 몽골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몽골을 방문하고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차 례


REGIONAL SEMINAR ON INDEPENDENT DEVELOPMENT AND FUTURE
FOR NORTH EAST COUNTRIES
MONGOLIA
DPRK
JAPAN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것처럼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때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 자립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확고한 전망이 펼쳐진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보급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2017년 10월 7일 이딸리아 로마에서 현 세계에서 자주성과 평화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길을 따라 드팀없이 나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영국, 도이췰란드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 이딸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1 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자주로 존엄떨치는 나라이라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이것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 유럽지역 나라들이 나아갈 길은 반제자주의 길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것은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모두의 영예로운 의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자주력량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체사상과 결부하여 토의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해결방도를 모색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토론회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토대하여 매개 나라와 지역의 자주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진행

조선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가 2017년 11월 18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사회과학원 연구사들, 제 3 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사회과학원 부원장 서광웅은 제 3 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학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이번 대회기간에 진행되는 국제학술토론회가 조선학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 서성일은《강력한 정치군사적위력으로 담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략적지위라고 할 때 그것은 해당 나라가 국제관계, 국제정세발전의 기본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이래 동북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국제관계발전, 국제정세발전에서 무시할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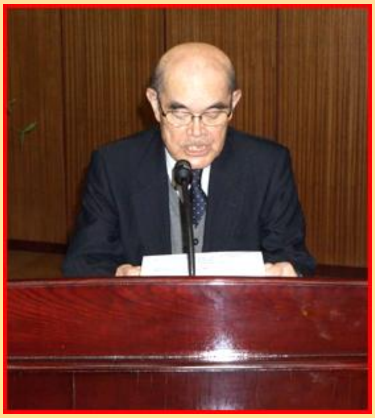
그는 공화국의 이러한 전략적지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과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이라고 하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전략적지위는 국가건설의 전 력사적행정에서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제일국력으로 내세우시고 그 강화에 선차적이고도 가장 큰 힘을 넣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라고 그는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자립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갈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보편적의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이며 사이다마대학 명예교수인 가마꾸라 다까오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전진은 시대의 절박한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해설하였다.



로씨야사회주의혁명성공의 원인은 정세를 정확히 인식한데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을 의식화, 조직화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는 로씨야사회주의의 좌절의 원인에 대하여 지도사상이 잘못되고 관료주의가 만연하였으며 자주적주체형성에서 당과 대중의 단결이 실현되지 못한것이라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로씨야혁명의 성공과 좌절의 원인을 해명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령도하는 당과 로동자와 인민대중의 사상과 목적의식적인 통일에 기초한 공고한 자주적 단결을 형성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확고히 전진시키고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실장 김상학은 최근 조선인민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고 하였다.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보장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주체화실현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인민경제의 현대화실현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건설에 총

력을 집중함으로써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 엔흐바뜨랄드는 《현단계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국가건설》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국가건설은 전체 아시아나라들과 다른 대륙의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에게 있어서 관건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개인의 리익을 주장하는 철학으로부터 자기 인민에게 필요한 인도주의적가치관을 주장하는 철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30 년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몽골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쓰라린 결론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4 대원칙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며 이 4 대원칙은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열쇠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특히 서방의 정치가들의 모든 위협에 현실적으로 맞서나가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자주적발전을 담보해주는 조선인민의 자주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최후승리를 이룩할것과 전체 벗들,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황명철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학연구성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를 비롯한 력사학회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를 바로 해명하고 빛내이기 위한 학술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근 력사연구성과에서 주목되는것은 반만년민족사를 새로운 형식으로 종합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과정에 《조선부문사》와 《조선단대사》 집필편찬사업이 완성된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고구려사연구의 중요성으로부터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자료와 분석들로 고구려력사를 새롭게 정리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고구려총서》 집필을 기본적으로 완성할수 있었고 고려시기의 금속활자를 새로 발견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로헤 껠레 깔론다 앙드레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패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정치,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민들이 가장 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정치사상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모델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날 **김정은**원수께서 계승해나가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결과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진보세계를 밝혀주는 이 위대한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한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인민의 복리와 선군정치에 의한 세계적 높이의 진정한 자위를 위한 훌륭한 자기발전수단들을 더욱 늘여나가는 자주독립적인 나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하였다.

그는 1950년부터 계속되고있는 경제재정적제재도, 이 나라의 경제

와 기술공업적발전을 질식시키려는 파렴치한 목적에서 해가 감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실시되고있는 유엔안보리사회의 부당한 제재도, 계속되는 파괴적인 자연재해도 이 나라 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힌 철학적원리,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투쟁과 창조력, 사상의식으로 사회력사를 창조한다는것을 밝힌 사회력사원리 그리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에 의거할것을 요구하는 지도적원칙들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의 기본내용들은 그것이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들에 구현될 때 불패의 원동력으로 된다는것을 그는 해설론증하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과 우리 인민의 문화적권리보장》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연구사 김승일은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 근본특징은 인류의 문화발전을 주도해나갈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에서는 당의 문명강국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인민들의 문화적권리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의로부터 교육강국, 인재강국실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통하여 인민들의 의료상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평등하고 완전하게 보장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고 체육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을 추켜세워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다고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과 문학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나라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많은 성과들을 내놓고있으며 그에 따르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조선인민의 문화생활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김경순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고수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민속전통은 인민대중의 오랜 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대를 이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생활풍습으로서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인다는것은 력사적으로 창조되여 대를 이어 전해오는 우수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적극 찾아내고 살려나가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라고 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민속전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민속전통을 고수발전시키는 문제를 당의 정책으로, 공화국의 법으로 제정하여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적 풍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주생활풍습이 고수발전되고 민속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민속놀이를 적극 살려나가고있으며 고유한 민속음악과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가정생활풍습이 고수발전되고 우수한 례절문화를 적극 살려나가고있다고 하였다.

연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민속학부문연구사업이 심도있게 진행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적풍습을 고증하고 해설한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고 그것을 소개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이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화국민속학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일본 간또가꾸잉대학 교수 오우찌 노리아끼는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을 주체로 하여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내용을 관철해오시였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은 **김정일**총비서에 의하여 이어지고 오늘은 **김정은**위원장께서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신다고 하였다.

그는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공화국의 법적기초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있으며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다는것을 해설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의 특징은 수령관의 구현이라고 하면서 그는 1972년헌법 제6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처음으로 규정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에 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는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2009년헌법 제10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고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최고령도자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하면서 2016년헌법에서는 제100조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우월한 사회는 사람중심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주체사상을 축으로 하여 실현하려고 하는 조선의 사회주의라고 강조하였다.



《중세서사시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서사시 〈동명왕편〉》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강복실은 고려시기 이름난 문인 리규보에 의하여 1193년에 창작된 이 작품이 B.C. 3세기에 세워진 고구려봉건국가의 건국설화인 《주몽전설》을 재현한 장편력사서사시라는것을 해설론증하였다.

그는 시인이 고구려시대와 더불어 자랑높은 민족사의 자랑찬 전통을 대대손손 계승하여 민족발전과 사회적안정을 이룩해나가려는 열망을 작품의 주되는 사상적지향으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동명왕편》은 근 280행으로서 머리시와 고구려건국설화를 시화한 본시, 맺음시로 구성되여있는 큰 규모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작품은 해모수신화, 주몽전설 등 설화유산들을 기승전결의 줄거리를 완결하게 갖춘 서사시적화폭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력사물주제창작과 서사시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하면서 동명왕의 비범한 성격과 지략, 용맹을 부각시키고 건국사적을 밝히는데서 자기의 뚜렷한 형상적 몫을 담당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족사의 유구성을 긍지높이 확증하고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을 강렬하게 고취한것으로 하여 이후시기 시가문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제학술토론회는 조선학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범위에서 더욱 심화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 학자들사이의 뉴대와 교류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STUDIES

좌담회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

참가자; 리성철(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서기장)
김창경(조선사회과학자협회 실장)
오성철(조선사회과학자협회 실장)
리정화(사회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책임심의원)

사회자-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여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상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게 되면서 인류는 주체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해 노력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리성철-그렇게 합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주체철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늘어나고있는 사실은 주체철학이 혁명실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철학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줍니다.》

오늘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따르는것은 막을수 없는 현시대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에 대한 신봉의 열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사상의 운명을 결정하는데는 그 진리성, 시대성과 함께 그것을 옹호하는 사회적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하는것이 그 사상을 따르는 신봉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상에 접하는 과정은 크게는 두가지 경로 즉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사상적주입이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된 사상들은 비록 관습으로 굳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상을 옹호하는 국가권력이나 사회경제적기초가 허물어지면 점차적으로 사멸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상도 그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견결히 옹호하는 감정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환경이 변화되고 외적비난과 공세의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의 두뇌에서 리탈되여 점차 자기의 거처지를 잃게 되는 법입니다.

김창경-그렇습니다.

인간이 정확한 사상을 포착하고 따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동기도 각이하다고 봅니다.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에 매혹되여 맑스주의신봉자로부터 주체사상신봉자로 방향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노우에 슈하찌를 두고 《조선만세를 부르며 조선에 대해서만 연구하지 일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비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노우에 슈하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주체사상이 조선에만 국한된 한 민족의 사상이겠는가. 주체사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배워야 할 사상이며 조선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지만 인류의 사상, 세계적인 사상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오성철-그렇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속에는 이노우에 슈하찌처럼 곡절

많은 인생체험을 거쳐 생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도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에서 찾고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니체철학을 숭상하다가 방향전환을 한 한스 클레카츠키처럼 오랜 정치경력을 가지고 자기 식의 정치리념을 모색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신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군인가정에서 태여난 한스 클레카츠키는 제 2 차 세계대전시기에 나치스소년선봉조직에 들었으며 오스트리아공군비행사로서 여러 전투들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그는 전쟁이 인류에게 들씌우는 무서운 재난과 참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평화옹호사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반전평화위업에 헌신할것을 결심한 그는 20 대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그후에는 사법상으로, 인스브르그종합대학 공법 및 정치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대정치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현대정치학을 연구하면서 정확한 정치리념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던중 도이췰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쓴 《북조선방문기》를 읽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수령님으로부터 온 세계의 자주화, 유럽의 자주화에 대한 가르치심을 직접 들으며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가 지금껏 모색해온 정치리념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그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온 세계에 보급전파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사회자-주체사상, 주체철학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신봉은 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선물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지 않습니까?

리성철-그렇습니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가 올린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 주체사상가나전국연구소 문학예술인지부

책임자였던 프레드 아그보블리가 올린 유화《아프리카에 비낀 주체의 해발》, 네팔조선친선협회에서 올린 조각품 《주체의 사원》 등 위대한 장군님께 인류가 올린 선물들가운데서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리성으로 감수하고 자기 운명을 오직 주체사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세계인민들의 의지를 담은 선물만도 수만점이나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인류의 선물들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의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주체사상의 거대한 견인력에 의하여 세계 여러 대륙들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인사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지 않습니까?

오성철-그렇습니다.

프랑스 빠리 제1종합대학 철학교수였던 삐에르 부도는《생의 철학》을 진정한 철학으로 믿고 거기에 온넋을 바쳐온 사람이였지만 평양을 방문하고 주체사상에 접한 때로부터 부르죠아철학과 완전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로 인생전환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1984년 9월 《프랑스 꿀띠르》방송과의 실황회견에서 《나는 동방에 있는 조선에 갔다 왔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이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려온 리상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로 된 그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그마한 비나 하나 세워달라. 붉은 대리석에 태양을 그리고 그밑에는 오각별을 새겨넣으라. 태양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며 오각별은 태양의 두리에 결속된 5대륙의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의미한다. 별안에는 〈나는 주체의 심장으로 영생하리라〉라고 쓰고 그밑에 내 이름을 써달라. 이것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사랑할 때

사람은 누구나 영생할수 있다는것을 후대들에게 전하고싶어서이다.》

그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얼마후 프랑스에 있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또 하나의 주체사상연구조직을 뭇고 조직의 이름을 《부도협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자-이러한 인생전환사는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서 거의나 찾아볼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사상신봉의 열기를 타고 세계 모든 대륙들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수많이 나오고 자주시대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것이 세계적추세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김창경-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던 주체사상연구보급이 1960년대부터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 의하여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기층조직들중에서 1969년 4월에 말리의 고등사범학교 교원, 학생들에 의하여 결성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바로 제일먼저 발족한 주체사상연구조직이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활동한 전국적인 조직은 1977년 4 월에 레바논에서 조직된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이였습니다.

1978년 4 월에 전세계적주체사상연구조직인 주체사상국제 연구소가 창립되였으며 1980년 9 월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가, 1985년 4 월 시에라레온의 프리 타운에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1978년 2 월 꼬스따리까의 싼호쎄에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1985년 10 월 프랑스 빠리에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학회가 창립되였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대륙별 연구조직들이 창립된 후 여러 나라에서 국가수반들과 정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의 발기와 후원밑에 수많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나왔습니다.

리성철-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나온 후 세계적으로 주체사상연구토

론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을 위한 출판물선전도 광범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특히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들을 번역출판하며 사진전시회, 해설강연회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사회자-그렇습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연구성원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사상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사상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지 않습니까?

오성철-옳습니다.

일본 가나가와대학의 한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전세계에 보급되고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게 되였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주체사상이 다른 그 어떤 사상과 대비도 할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주체사상, 주체철학의 밝은 전도를 락관하게 하는 이 웨침은 그 하나만이 아닌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경-그렇습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고 자기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과 더불어 세계는 더욱 자주화되여갈것입니다.

사회자-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주체사상은 자 주시대의 오늘뿐아니라 미래까지도 대표하는 사상으로 더욱더 빛을 뿌릴것이며 이 영원불멸의 혁명사상의 거대한 영향력에 의하여 자주의 새 세계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할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